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의 명옥입니다.

한국 사람이 첫 대면 자리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죠.

때로는 친근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질문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것도 대부분 소주 몇 병으로 묻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는 술을 얼마나 마시는가를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해 왔죠.

그렇다면 우리 역사상
최고의 애주가는 누구였을까요?

애주가라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성종 때 병조판서까지
역임한 손순효라는 인물입니다.

중국으로 보내는 모든 서신을
그가 담당할 정도로

당대의 빼어난 문장가였고요.

그의 문장 실력은 술을 마신 후에도
결코 떨어짐이 없었죠.

하지만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
늘 취해있는 듯 했고

이러한 모습을 본 성종은
걱정하는 마음에

그에게 술을 경계하란 의미로

하루에 딱 3잔만 마시라며
작은 은잔을 하사합니다.

애주가인 손순효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이 작은 잔으로

3잔밖에 못 마신다고 하니
역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왕이 직접 하사한 어명이라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어요.

한참 동안 고민하던 손순효는
지혜를 하나 발동을 시킵니다.

뭐냐? 바로 잔은 그대로 두되
잔을 넓히는 것이었죠.

대장장이한테 당장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이 작은 은잔을 사발만큼
크게 만들어 달라고.

손순효는 이 커진 은잔에 술을 마시고

어전에서 전처럼 다시 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성종이 이야기 합니다.

어명을 어겼다고.
크게 분노하죠.

은잔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잔 어디 있나,
버리고 다른 잔으로 마시고 있지 않나.

그런데 손순효는 여기서
지혜가 다시 한 번 발동을 합니다.

어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준 잔은 그대로라고 그러면서

야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하, 잔의 무게를 재 보시옵소서."

결국 무게는 그대로였고

성종은 자기가 준 잔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손순효의 재치에
마음이 풀어진 성종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소견이 내가 준 잔처럼 좁아지거든

그때 그대의 넓은 아량으로
이 사발 잔만큼 넓게 퍼주길 바라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진정한 애주가들의
대화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또 술에 대해서 풍류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학창 시절 문학 시간에 배웠던
<관동별곡> <사미인곡>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싫어했던 시간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사 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 선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마어마한 애주가였죠.

정철이 이 결정적인 애주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장진주사>라는 권주가입니다.

"한 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꽃을 꺾고 술잔 수를 세면서
한없이 먹세 그려"

또 <대월독작>

달을 보며 혼자 술을 마신다는
이 시를 보면

보름달을 보며 홀로 술을 마신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그가 남긴 술에 관한 시조만 해도
20여 수나 됩니다.

또 그냥 시만 쓴 것이 아닌
술과 자연을 함께 즐기며 썼던 것이죠.

"저녁 달은 술잔 속에 지고
봄 바람은 내 얼굴에 떠오른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자루 외로운 칼
길게 휘파람 불며 다시 누대에 오른다."

실은 그런데 정철은
문인으로서는 후한 평가를 받지만

정치가로서는 박한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 서인의 영수였던 그는
임진왜란 전인 1589년 기축옥사 때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1,000여 명의 동인 측 인사를 처형하죠.

또 수백 명을 귀향 보내서
원한을 사기도 합니다.

술에 대한 절제도 약했습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의주로 몽진했을 때는

중요한 어전에 과음으로 불참을 해서
이후 탄핵을 받는 등

광해군 이전까지 그 명예가

주인공인 국선생 역시
서민으로 좌천되지만

좋은 향과 인품을 가졌기에

다시 왕의 부름을 받고
공을 세우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다양한 모습을
술에 빗대어 표현한 이규보는

결국 맑은 술인 주인공이
공을 세우고 돌아가는 모습과

술에 대해서 선생님이라는 붙이는 등
술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죠.

하지만 아들들의 방자했던 모습을 통해
술의 나쁜 점 역시 서술하는 등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좀
신하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왕 중에서는 누가
가장 애주가였을까요?

왕 중에서 최고의 애주가를 뽑는다면
아마 세조일 것입니다.

계유정난으로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왕이 된 세조죠.

세조는 술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남겼는데

주사를 부려 죽을 뻔했던 사람,
의심받은 사람

그리고 아예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왕과 신하가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궁궐 내 아침 조회인
상참이 끝나고

왕이 술자리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때 왕과 술자리 중에
엄청난 실수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집현전 학자 정인지입니다.

정인지는 술 마시고 취해서

세조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라고.

기록에는 '너'라고 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정인지는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세조는 그냥 넘어가죠.

왜냐하면 당시 세조는 50대였고

정인지는 70살이 넘는 나이로
거의 은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인지는 세종 때부터
궁에 있었던 사람이라

실수를 또 눈감아준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죽을 뻔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술자리에서
신숙주가 세조와 팔씨름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신숙주가 한 두 번 져 줍니다.

그런데 자꾸 세조가 한마디 하죠.

"제대로 해, 진짜 해 봐!"

이러자 신숙주는 온 힘을 다해
왕의 팔을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세조의 팔을 그냥 확 꺾어버린 거죠.

힘이 세다는 것을
세조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서

팔에 불끈 힘을 넣었는지
세조가 굉장히 아파했어요. "아야!"

세조로선 정말 불쾌했겠죠.

그때 어떻게 됐겠어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조가 술자리를
일찍 끝내버려요.

"집에 가자!"

그런데 이 세조를 왕의 자리에
앉혔다고 하는 킹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명회죠.

한명회가 세조의 심기를 눈치를 채요.

그래서 신숙주가 집에 들어간 다음에
신숙주 집안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불을 다 끄고
등불을 치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숙주는 늘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서 책을 읽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그가 새벽 3시에
불을 켜고 책을 읽는 순간

세조는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숙주가 별로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도전하고자 나를 이긴 거구나!”

그렇게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식솔들을 시켜서 불을 다 끈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설에 따르면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냈는데
불이 꺼져 있었던 거죠.

그러자 세조는 안심하고
신숙주를 죽이지 않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숙주는 새벽 3시에
눈을 떴다고 하고요.

또 세조와 술자리에서 엮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양정이란 인물은 계유정난 때
공을 세워서

세조가 왕이 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런데 일등 공신이 되지 못합니다.

늘 그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술자리를 같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술직하게 말을 하게 되죠.

세조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조한테 한마디 합니다.
“이제 왕 그만하시죠”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즉위한 지 오래됐으니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세조에게 양위하라고 합니다.

세조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잡은 지
겨우 12년밖에 안 됐는데

신하가 면전에서 퇴위를 압박하니까

분노와 충격에 빠진 듯
한 동안 말을 못 합니다.

결국 세조가
"알겠다, 양위 하겠다" 하니까

신숙주, 한명회 같은 신하들이
"아니됩니다"가 들어가는 거죠.

통곡 아닌 통곡을 해서
겨우 세조의 퇴위를 막아냅니다.

그런데 세조가 한마디 하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하니?"

그러자 신하들이
"양정을 사형시키시옵소서."

결국 양정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나흘 뒤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과유불급인 것이죠.

술은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

우리가 과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는 외국의
애주가들을 살펴볼까요?

외국에도 애주가들이 정말 많은데요.

금주령을 푼 루스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 등은

늘 샴페인을 즐긴 분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분을
진정한 애주가라고 생각합니다.

때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막 발발했을 때입니다.

이때 영국과 독일은
<플란다스 개>로 유명한 지역이죠.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에서
90m를 두고 참호전을 진행하게 되죠.

참호전이 뭐니까?

서로 참호 속에서 숨어 있다가
달려 나가 싸우면

기관총으로 다 살상하는
전투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정말 북유럽의
추운 지역에 크리스마스가 오죠.

그러면서 눈이 내려요.

이때 독일 병사 한 명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국 병사들이 다 듣더니만
양코르를 부르고 같이 캐럴을 부릅니다.

그런 순간 독일군 병사가
영국군 참호로 오죠.

영국군 병사가 깜짝 놀라서
총으로 겨누자

독일군 병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쏘지 마라! 맥주를 가지고 왔다!”

결국 영국과 독일 병사는 악수를 하고
맥주를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양 군대는 정전협정을 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카드놀이를 했죠.

적이기 전에 같은 인류라고 생각해서
맥주를 건넨 독일군 병사

진정한 애주가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문희'라는 술입니다.

탁주와 청주 버전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은 탁주 버전입니다.

제가 왜 소개를 했느냐
오늘 애주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주가들이 대부분 양반 출신,
문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인들이 꼭 지나가면서
들린 곳이 바로 이 문경새재죠.

왜냐? 과거시험을
보러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문경에서 나오는 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문희'입니다.

원래 문경은 '문희경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줄여서 문경이라 한 것이고요.

이 문희라는 이름의 술은 문희경서의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찹쌀 100%에 물을 쌀에 비해서 30%밖에 넣지 않아

정말 극강의 달콤함을 자랑하는 술입니다.

단맛이 '쌀이 주는 단맛이 이렇게 달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문경에 가시면 송이버섯 전골이 유명합니다.

가셔서 송이버섯 전골과 이 술을 꼭 한번 드시기를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허균 아시죠?

<홍길동전>을 쓰고 또 영화 <광해>에서 류승룡 씨가 열연하기도 했죠.

이런 허균은 42살 관직에서 쫓겨나

은둔과 한적에 관한 내용을 휘집한 책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가할 한'(閑)
'마음 정'(情) '기록할 록'(錄)

<한정록>입니다.

허균은 그 <한정록>에서 술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뻐서 마실 때에는 절제가 있어야 하며

피로해서 마실 때는 조용해야 한다.

점잖은 자리에서 마실 때는 소쇄한 풍도가 있어야 하며

난잡한 자리에서는 규약이 있어야 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마실 때는

한가롭고 우아하게 하면서
진솔하게 마시되

잡객들과 마실 때는
공무니를 빼야 한다.”

허균은 술을 사랑하는 애주가라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이런 것부터 잘 지켜져야

모두가 행복한 술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저 역시 허균이 말한 잡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